

마음이 병든 자녀! 어떻게 도울 것인가?

- 하신주 원장 / 2003. 7. 22 -

(창의적 접근 지역 유치원 원장,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교회교육국 국장)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건강한 아이들, 건강한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아이들은 병든 아이들입니다.

반항적이고 빼돌어져 있고 소심하고 남을 괴롭히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나 교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병든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 그 접근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요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다시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꽤 씩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당신의 자존심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주셨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녀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나를 무시했니! 혼 좀 나와라"

권위를 내세워 아이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욕박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먼저 용서를 구하며 올 때까지 먼저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2. 요21:5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의 질문에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화시키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입니다. 화를 내고 충격 받고 그리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며 자녀들을 괴롭히기에 자녀들은 작은 문제일지라도 부모들의 반응이 두려워 그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의논하지 않으

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녀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게 하고 부모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요21:6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교훈이나 훈계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 홀로 서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것처럼 문제를 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만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